



2008 인테리어 트렌드 세미나

자연 소재와 첨단 기술을 통한 개성 있는 디자인 시대 열려

인테리어 전문지 월간 <INTERNI & Decor>에서 주최하는 2008 인테리어 트렌드 세미나 2차가 지난 5월 16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4개의 국제 박람회를 토대로 한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인테리어 트렌드를 정리해본다.

에디터 박지민 사진 이충규 사진 제공 INTERNI & Decor(02-3431-8802)



지난 2월 15일, 독일을 중심으로 열렸던 1차에 이어 이번 2차 세미나는 이탈리아의 인테리어 트렌드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세미나의 1부는 최근 열린 유럽 박람회를 기반으로 월간 <INTERNI & Decor> 김은영 수석 기자의 트렌드 분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어진 2부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이날 진행을 맡은 동부산대학교 인테리어 코디네이트학과 가중순 교수는 개회사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은 주거 문화를 이끄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본인의 디자인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Sustainable Design & Collaboration

세미나 1부에서는 김은영 수석 기자가 올해 초에 열린 4개의 국제 박람회를 토대로 인테리어 트렌드를 정리·분석해서 발표했다.

첫 번째는 지난 4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조명 및 건축 박람회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2008년 트렌드 키워드로 다음의 4가지를 뽑았는데 화려한 그래픽과 강렬한 색상으로 더욱 대담해진 모던 스타일(Boldly Modern), 실버·스틸·크리스털 같은 소재를 통한 고급스러움과 화려함(Seductive Glamour), 자연적인 요소를 하이테크적으로 재구성하는 디자인(Vegetal Technology), 최소한의 선과 색상을 바탕으로 한 미니멀 디자인(Sober Mind)이다. 게다가 이런 트렌드를 만드는 데 디자이너와 브랜드가 협동하던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 서로 다른 영역의 브랜드가 함께 작업해 새로운 제품 영역을 창조하기도 한다. 이렇듯 2008년 트렌드는 지속 가능한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Sustainable Design)과 협동(Collabor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소개한 밀라노 가구 박람회에서는 원목, 대리석, 가죽 등 가공되지 않은 소재 자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는 신제품 가구를 소개했다. 주방에서는 가장 최소한의 장식에 최첨단 기술이 결합돼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주방 가구들이 소개됐고, 100%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적인 주방도 등장했다. 또한 기존의 백색 욕실이 아니라 강렬한 색상이나 독특한 텍스처로 마감된 욕실 용품들이 등장했다. 이제 더 이상 주방과 욕실은 기능적인 역할만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감성적인 디자인까지 접목된 아름다운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나만의 개성 있는 디자인을 창조하다

지난 2월, 발렌시아에서 열린 세라믹 타일 박람회에서는 ‘도시 유목민’이라는 주제로 건축과 인테리어에서의 세라믹 트렌드를 발표했다. 타일을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유동성’과 ‘창의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더 이상 타일은 정적으로 네모 반듯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래픽과 접목되거나 원목·벽지 같은 느낌이 나도록 정교한 디자인으로 개발되는 등 경쾌한 느낌을 가져다준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박람회는 지난 3월, 독일 쾰른에서 열렸던 국제 하드웨어 박람회다. 최근 하드웨어와 잠금 장치·보안 분야의 트렌드와 여성들의 주택 수리 참여 및 DIY 분야 시장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즉, 이제 인테리어는 최신 경향에 맞춰 일률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트렌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요구에 따라 개성 있게 창조하는 것이다.

세미나 2부에서는 인테리어 전문가들이 박람회를 통한 각 분야별 트렌드를 발표했다. 한샘의 김윤희 수석 디자이너는 부엌 가구 트렌드를, LG전자 디자인경영센터 정상문 책임은 전기 제품의 트렌드를 강연했다. Duomo &

Co. 이준일 차장은 환경 문제로 인한 에너지 절약과 CO₂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조명에 관한 연구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조명의 마감재 역시 자연 소재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ARIN m.h.c 강운구 대표는 섬세하면서도 편리함과 안전을 내세운 하드웨어 트렌드에 대해 발표했다.

총 600여 명의 인테리어 디자이너들과 학생 및 교수들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국제 박람회를 바탕으로 한 인테리어 트렌드를 분석해 발표함으로써 성황리에 마쳤다. ☺

<인테리어 트렌드 박람회 일정>

일시	박람회	장소	주제
2/5~9	CEVISAMA	스페인 발렌시아	세라믹, 욕실 전문 박람회
3/9~12	International Hardware Fair	독일 쾰른	하드웨어 및 DIY
4/6~11	Lighting + Building	독일 프랑크푸르트	건축 설비 및 조명
4/16~21	I Saloni	이탈리아 밀라노	가구 및 리빙 트렌드
7/4~8	Decorative Life	독일 프랑크푸르트	고급 브랜드 및 디자인 제품
9/5~9	Maison & Object	프랑스 파리	홈 데코레이션 트렌드
9/18~21	100% Design	영국 런던	건축 및 인테리어 산업 박람회
9/30~10/4	CERSAIE	이탈리아 볼로냐	세라믹, 욕실 전문 박람회